

중용지도 없는 금감원



이 정 혁
西村브리핑

“롯데손보 경영진들은 그냥 양복 입은 야치들이예요.”

900억원 규모의 후손위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의 반대에 밀린 롯데손해보험이 마지못해 상환 보류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금감원 보험부문 고위 간부는 일부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 간부는 지난해 말 무지 해지 보험 해지율 예외 모형 선택도 그렇고 이번에도 금감원 지침에 어긋장을 놓았던 롯데손보를 방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뽕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던 중이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2차례의 갈등 사태 이후 그동안 강경파였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6월 초, 보험 담당 김 모 부원장보가 9월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강대강’ 대치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무

엇보다도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관례상 금융 당국의 과격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 전망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첫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예방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군기 잡기식’ 징벌적 제재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시각이다.

금융 감독의 본래 취지는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경영개선 가이드를 제시하며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이 기준과 부합되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 제재의 가장 나쁜 선택으로 남게 됐다.

우선 금융당국이 그동안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설명할 때 자주 내세운 표현인 위험을 조기에 간파해 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99%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을 웃돌고, 올해 1분기(119.9%), 2분기(129.5%)와 비교해도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순이익 흐름을 보면 2024년 272억원에서 2025년 3분기까지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정량 지표상으로는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런 정상 지표는 무시하고 대주주가 증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계량평가 항목을 이유로 ‘엘로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경영 개선 가이드나 산업 전체의 안정성 면에서 볼 때도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 중인 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통상 매물에 대한 감독 조치는 가급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기류였는데 이번처럼 칼을 빼들어 매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학의 대표적인 경전인 중용(中庸)에서는 “덜 익은 알곡을 다 걸러내면 먹을 것이 남지 않고, 미운 사람을 다 걸러내면 쓸 사람이 남지 않고, 매를 많이 휘두르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에 둔감해진다”라며 ‘중용지도(中庸支道)’를 언급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 금감원 직원들이 팔히 가슴에 새겨야 할 감독 자세가 아닐까 한다.

/ljin@metroseoul.co.kr

플랫폼의 실수가 소비자 탓?



기 지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월세, 식비, 통신비 등 숨만 쉬어도 드는 비용이 있다. 비용은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급격히 늘어난다. 교통비, 회비, 사람마다 의류비까지 포함되니 말이다.

최근 숨의 무게가 무거워 진다는 것을 느낀다. 이유는 구독료와 수수료. 저렴한 가격에 시작했던 쿠팡, 유튜브, 넷플릭스는 이제는 만원에 구독할 수 없다.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모든 플랫폼에 이름없이 붙는 수수료는 우리부담으로 이어진 지 오래다.

최근 여행을 준비하며 항공료를 결제하다 대행료(수수료)를 두번 결제했다. 아니,

결제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항공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플랫폼 수수료가 2만원일지 몰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항공료를 결제할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 결제 과정만 거쳐도 내야 했던 것. 문자가 온 곳으로 전화를 했지만 상담사 연결은 쉽지 않았고, 당황한 손길은 웹의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일대일 문의를 통해 수수료를 환불받았지만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문자를 스미싱으로 오해했더라면, 웹의 문의란에 글을 남길 생각을 못했더라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플랫폼은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에는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면 이제는 앱 하

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실수조차도 소비자의 눈으로 찾아야 한다. 알림 한 줄 없이 붙는 수수료, 결제 단계에 숨어 있는 옵션, 환불이나 취소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추가 비용들까지 결국 사용자가 직접 ‘검증’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비용과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투명한 편리함’이다.

플랫폼은 편리함의 이름으로 가격이 불분명해지고, 책임의 무게가 소비자에게 이동되지 않도록, 플랫폼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플랫폼의 실수를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탓이 되지 않기를.

플랫폼의 실수로 인한 금액으로 숨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yu115@

오늘의 운세

11월 28일 (음 10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돼지띠 친구의 도움으로 거래가 무사히 성립. 48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60년생 능력 부족으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 아프다. 7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4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37년생 거울은 혼자서는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 지금이라도 노후대비. 49년생 선배의 도움으로 일을 마무리. 61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한다. 73년생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85년생 인생은 여차며 혼자 가는 여행이다.

38년생 양다리를 접으니 웬지 마음은 편하다. 50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62년생 손톱에 뾰드레가 가득이 손조로운 하루가 되겠다. 74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86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39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 51년생 산들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63년생 제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알도록. 75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87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행복이 눈앞.

40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는 신어야 한다. 52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76년생 기죽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88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41년생 자식이 월급을 나눠주니 고맙다. 53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65년생 노부모님 말씀에 어불성설(語不誠說)로 우기지 마라. 77년생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터. 89년생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4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4년생 전화파싱을 조심하자. 66년생 부동산 관련 중요한 연락이 오니 우편물을 꼭 확인. 78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온다. 90년생 떠돌다가 직장에서 미운털 박히게 되니 조용히 하는 것이.

43년생 위기를 대비하여 이제라도 비상금을 모으자. 55년생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개척. 67년생 친구와 대립이 생기니 조심. 79년생 가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니 귀하게 여겨라. 91년생 타인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편하다.

44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주의. 56년생 예속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은 거의 없으니 기해해보라. 68년생 거짓말 빼고 사랑도 배워가며 하는 것. 80년생 직장에서 과민한 반응을 자제하자. 92년생 성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네.

45년생 주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조직에 이롭다. 57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69년생 결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81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려버려 두는 것이. 93년생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로 늦지 않았으니 먼저 할 일을 찾아라.

46년생 남편 말에 연중유골(中有骨)을 상해하도록. 5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0년생 먹는 것 갖고 싸우나 돈 갖고 싸우나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82년생 열심히 일하니 세상이 꽃동산. 94년생 꿈이 있어 슬프지 않다.

47년생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 고맙다. 59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는 것이 순리이다. 71년생 길에도 양보가 있듯이 운전 때 차량 양보. 83년생 삼재 기도하도록. 95년생 자동차 바꾸는 것을 늦추어서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보도록.

김상회의四季

은혜 값는 가치와 젠슨 황



얼마 전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이 화제를 주고 있다. 젠슨 황이 어려웠던 시절, 자신에게 숭통 트이는 기회를 준 한국에 대한 감사가 알려지면서 은혜 값는 가치의 설화까지 소환되고 있다. 젠슨 황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고 이관희 회장과와 일화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젊은 젠슨 황에게 고 이회장은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무엇보다 당시에 이름 없던 소규모 벤처 창업자였던 자신에게 이메일도 아닌 손편지를 써서 보낸 진심에 감동하였다고 소회를 얘기했다.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한 이관희 회장의 탁견으로 한국에 오게 됐으며, 현재야 내로라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당시에 그는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팔기 위해 직접 용산전자상가를 여러 번 찾아왔었다.

한국의 PC게임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엔비디아가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엔비디아 성장의 역사가 한국의 PC방에서 시작됐다면 우리도 모던 성장의 역사를 얘기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은혜를 아는 것은 바른 성품을 지닌 자의 덕목이다. 그리고 이는 선순환을 낳는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선두인 삼성과 협업하기로 한 엔비디아가 그 예이다. 젠슨 황은 오늘날의 자신과 엔비디아가 있기까지 도움을 받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니 나름대로 보은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만 출생인 그는 유교적 토대가 강한 문화권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한국인들과는 정서적 환경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올챙이 때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인지라 따듯함을 느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기하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3	9			
2		6	8					7
							3	
				8	4			3
		2				4		
3			2	9				
	9							
4					1	5		8
			7	4		3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6	8	8	7	2	9	9	1
8	2	9	1	9	6	8	2	7
7	9	1	8	2	9	2	6	8
9	9	8	2	6	2	1	7	8
6	1	7	9	9	8	2	8	2
8	2	2	7	8	1	6	9	9
9	8	9	2	2	7	8	1	6
2	7	6	9	1	8	9	8	2
1	8	2	6	8	9	7	2	9

1	6	8	8	7	2	9	2	9
7	2	9	6	9	8	1	8	2
2	8	9	2	9	1	8	6	7
2	8	6	2	1	9	9	7	8
8	7	2	8	9	6	6	1	9
9	9	1	7	8	6	2	8	2
6	1	8	9	2	2	7	9	8
9	2	2	1	8	7	8	9	6
8	9	7	9	6	8	2	2	1